

가을밤 만나는
재즈 & 그루브의 낭연



일시 : 2014년 10월 9일 (목)

시간 : 18:30

장소 : 송도 센트럴파크 카누승선장

주최 : ifez 인천경제자유구역청
Incheon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주관 : 소울라이프



서영도 일렉트릭 앙상블 소개글

2010년 국내 재즈계의 발군의 뮤지션들이 모여서 결성된 일종의 프로젝트 밴드이며, 대중음악상 2관왕을 수상한 바 있고 현재 국내 음악계에서 전방위로 활동중인 서영도가 주축이 되서 국내외 유수의 페스티발이나 크고 작은 무대에서 연주해 오며 관객들과 교류해오고 있다.

2014년도엔 국악계의 여러 뮤지션들과 새로운 또 다른 형식의 공연을 준비해서 중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 초청 연주를 비롯,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번 공연에선 발매될때마다 국내 재즈계에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는 그들의 앨범 ("random line" (2010), "new beginning"(2013)) 수록곡 중심으로 펼쳐질 예정이며 솔로, 듀엣부터 3관형식의 대규모 집단연주까지 프리재즈부터 그루브, 아프리카 음악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필두로 단번에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만 특별히 게스트 보컬과 함께 하는 순서까지 준비되어 있다니 단연코 기대되는 공연임에 틀림없다.



공연내용 및 곡목

1. so what

마일스 데이비스의 명곡으로 펑키하게 편곡하여 혼색선의 멜로디와 그루브가 어우러져 신나게 즐길수 있는곡

2. the preacher

가스펠풍의 멜로디로 누구나 쉽게 감상할수 있는 곡

3. killing me softly (+보컬)

로버타 플랙의 노래로 널리 알려진 알앤비의 명곡

4. price tag (+보컬)

jessie j 의 히트넘버로써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랑받고 있는 펑키한 넘버

5. the chicken

6. coming home

서영도 일렉트릭 앙상블의 곡으로써 블루스와 가스펠 스타일의 중독성있는 노래

7. tonight only

서영도 일렉트릭 앙상블의 곡으로써 아프리카 그루브와 레게리듬, 그리고 친숙하고 간결한 멜로디가 흥을 돋구는 곡

8. 시작

서영도 일렉트릭 앙상블의 작년 앨범 "new beginning"에 수록된 곡으로써 이들의 넘쳐나는 에너지를 느낄수 있는곡

- Bass, band Leader 서영도
- Guitar 정수욱
- Keyboard 민경인
- Drum 한웅원
- Alto Saxophone 김지석
- Tenor Saxophone 신현필
- Trumpet 배선웅
- Vocal 김소리

